

실업뉴스

OKBA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제790호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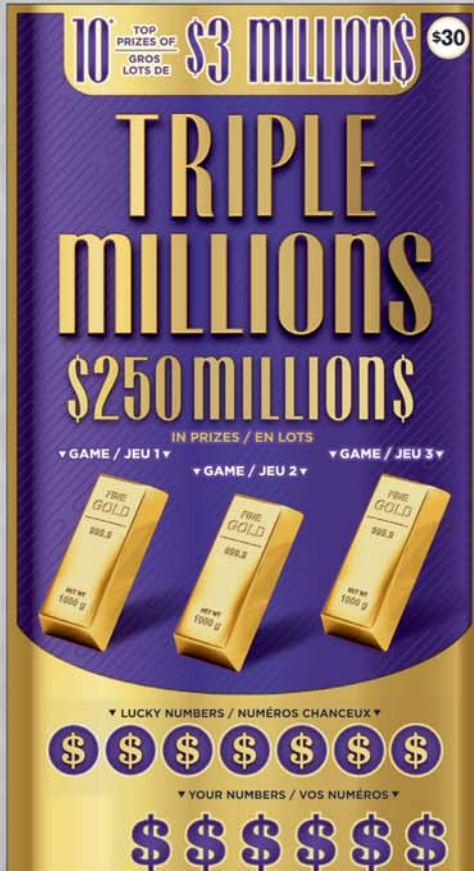
from OKBA



www.okba.net Publisher : Jae Gyun Shin /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새로운 \$30 TRIPLE MILLIONS 복권 출시에 대비하십시오!



2019년 11월 25일
출시

1등 상금 \$3백만

당첨 확률 3.57 대 1

당첨금 지급률 70%

반드시 출시일 당일에 활성화하고
복권진열대(silent sellers)에 진열하십시오!

팩 활성화 시점으로부터 40일 간의
연장된 당첨금 지급 기간

OLG 미스터리 쇼핑

OLG는 인증 절차 및 ID25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매업자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합니다. 미스터리 쇼핑객은 미스터리 쇼핑을 한 후 점수표를 작성하여 해당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쇼핑객은 매장 직원과 함께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매장이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만 25세 미만으로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ID를 확인하고 인증 절차를 따르십시오.

미스터리 쇼핑객이 수집하는 정보는 OLG가 규정 준수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여러 사항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미스터리 쇼핑 결과는 저희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데 유용합니다:

- 소매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상황의 식별
- 소매업자 지원을 위한 소매업자와의 소통 조정
- 이러한 소통의 효과 평가

미스터리 쇼핑객을 정중하게 대해주십시오. 이들은 OLG가 의뢰한 일을 하는 것일 뿐이며, 이들이 알아낸 것은 저희가 교육 및 규정 준수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OKBA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

- OKBA 회장 : 신재균 (Jae Gyun Shin)
OKBA 부회장 : 송명현 (Myeong-Hyeon Song)
- 홍보팀 : 실장 김광일 (Ted Kim) tongilisyj@yahoo.com
- 사업개발팀 : 이주녕 (Brian Lee) brianjn1108@okba.net
- 회계팀 : 김세환 (Justin Kim) accounting@okba.net
- 디자인팀 : 현미영 (Mimi Hyun) mimihyun@okba.net
- 본부협회 : Tel (416) 789 - 7891 / Fax (416) 789 - 7834

- 이사회 : 이사장 신영하 / 부이사장 김대용
- 감사위원회 : 류승진 / 이만석 / 장육용
- 분과위원회 : 장학 분과 / 회칙 분과 / 특별사업 분과
상벌분과 / 선거관리 분과

- 지구협회 : <광역 토론토 지구협의회>
(ABC 순)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895-1277
Newmarket 회장 금동진 (905)836-6429
North York 회장 방성덕 (416)221-7091
Peel 회장 이수봉 (905)813-1333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471-8079
Scarborough 회장 엄종호 (416)759-4503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 (416)363-9404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 (416)975-0365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604-3116

- <남서부 지구협의회>
Brant County 회장 이효영 (519)442-4143
Halton & Hamilton 회장 오재근 (905)825-8373
London 회장 오세경 (519)432-6672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 (905)354-1313
Waterloo 회장 최상경 (519)579-8130
Windsor 회장 윤문성 (519)326-1832

- <동북부 지구 협의회>
Durham 회장 이현식 (905)579-2500
Huronian 회장 배종민 (705)436-2248
Kingston 회장 이강경 (613)967-9998
Owen Sound 회장 허창훈 (519)323-4311
Peterborough 회장 이경석 (905)373-0569

■ KBA 협동조합 ■

- KBA 운영이사장 : 신영하 (Youngha Shin)
KBA 부이사장 : 심기호 (Kenny Shim)
 - KBA 총괄부장 : 권혁선 (Hyuk Sun Kwon)
 - KBA 사무장 : 배 줄리아 (Julia Bae)
 - KBA 협동조합 사무실 : Tel (416) 789 - 7544
Fax (416) 789 - 5013
 - KBA 협동조합 매장 : Tel (416) 867 - 1444
-
- KBA 운영이사(가나다 순) : 김대용 / 류승진 / 백사열 / 송명현
신영하 / 신재균 / 심기호 / 허창훈
 - KBA 감사 : 이만석 / 장해민



www.okba.net
www.okbacanada.com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04 - 06 / 12월 3일 조합 주주 총회 성료

07 / 토론토웨스트 지구협 정기총회 정·부회장 선거
피터보로 지구협회 연말파티

08 / 카드 수수료 1.5% → 1.4%

09 / 필 지구협 정기총회 정·부회장 선거
스카보로 지구협회 2019 송년회
노스욕 지구협회 정기총회(송년회 / 정·부회장 선거)
이토비코 지구협회 정기총회(송년회 / 정·부회장 선거)

10 - 12 / 전국 卍別 베이핑제품 정책 비교
협회 웹 주소 변경 예정
사푸토 유제품 2월 3일부터 인상

13 / 한인단체 활동보조비 지원 사업

14 - 15 / 전자담배 정부 정책 이중잣대?
토론토 웨스턴&욕 지구협회 정기총회
(정·부회장 선거 / 신년하례식)

16 - 17 / 아프리카 / 라틴계 내집같은 편의점

18 / 독자의 글(협회 자문위원 이형인) : 해가 떠오른다

19 / DIRECTORY

20 ~ 23 / K.B.A. 협동조합 12월 스페셜

[건물매각으로 현금 유동성 안정화 기조]

12월 3일 조합 주주 총회 성료



▲ 조합주주총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 신분확인을 위한 긴 줄이 늘어서 있다.

2019년 협동조합 주주총회가 예상밖의 많은 인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합 매장 쇼핑까지 겸하면서 1시 회의 시간을 진후해 회의장(교회)앞에 장사진을 이뤘다. 작년 정기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되면서 보통주 100불을 1불로 과거처럼 환원했고 후속 조치로 협회의 1,000여 회원 모두에게 1불 주식을 올해 2월에 발급했다.

따라서 300여 명 아래를 맴돌던 조합원 수가 줄지에 1000여 명을 넘었지만 정관 15조 의사정족수 (회의 성원) 15%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지 못했다. 그 결과, 1,000명을 기준으로 해도 최소 150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되지만 현실적으로 150명 참석은 거의 기대 불가능이라 정족수 부족으로 유회(流會)가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처지였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과거 몇차례 인정했던 출석위임장을 동원해 성원수에 보태기로 했고 협회 지구협회장과 조합 운영이사들이 매달려 동료 조합원이나 회원들에게 추중 참여를 수주해 독려해왔었다. 그 결과 회의 당일인 12월 3일(화)에 회의장 입장을 위한 신원 확인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성원 발표시 참석자는 95명에 출석 위임장까지 보태 216명으로 의사정족수를 넉넉히 채우고도 남았다. 재적 조합원수는 1,101명이니 166명 이상만 되면 현행 15% 성원수가 충족

되는 것이었다. 조합은 또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과거 보통주 100불 증서를 지참하고 회의장에 오면 100불을 현금화해 주고 조합 쿠폰을 구입하면 10% 가치를 가산해 110불 쿠폰을 지불하는 옵션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출석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참석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혜택을 제공했다.

박효진 (Roland Park) BROKERTEAM INSURANCE

Cell (416)985-5287

- 집, 자동차 단체보험
- 상업용 건물, 가게 단체보험
- Beer & Wine 가게 맞춤보험
- 프로그램스토어 특별할인보험

Main (905)770-8828
 Fax (905)770-8851
 roland.park@brokerteam.ca

실업인협회 단체보험

유회까지 걱정하던 조합 집행부와 직원은 안도했으며 생각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회의 온 김에 쇼핑까지 하자는 참석자들이 대부분이라 고객감사의 날 행사를 방불케 했다.

입장에 시간이 다소 걸려 회의는 1시 15분 경에 시작했으며 이사장과 협회 회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곧 바로 문제의 의사정족수를 다루는 정관계 정부 처리했다.

■ **의사정족수 정관계정안 통과**

현행	개정안
제 4장 회의 제 15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15% 이상 참석으로 개최되며...	... 5% 이상 참석으로 ...
<개정 취지>	
조합원 가입 확대를 위해 1달러 보통주를 협회 1,000여명 회원에게 금년 초 발급한 결과, 조합원 수가 종전의 300여 명에서 1,000여 명을 상회하는 대폭 증가에 따라 현행 정관의 15% 이상의 의사정족수 (회의 성원수) 충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5%로 조정함. 참고로 협회의 의사정족수도 5%임.	

원안대로 쉽게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했던 개정안은 재개정안들이 연이어 나오며 회의가 어수선했다. 5%가 너무 적으니 10%로 하자는 안, 10%로 하되 참석인원의 30% 범위내에서 출석위임장을 인정하자는 안도 나왔다. 각 제안자의 설명에 대한 질문과 추가 설명이 계속 꼬리를 물었다. 마침내 3개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안을 놓고 최종 표결에 부치자는 절충안으로 정리됐으며 거수 표결한 결과, 상정한 원안이 재석 인원 71명 중 최대인 44명 지지를 얻어 이 안을 놓고 재표결에 들어갔다.

결과는 57명의 지지였으며 정관 규정대로 2/3이상의 찬성을 얻게 돼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합 정관에는 정관 개정은 특별결의로 2/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조합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협회와 동일하게 재석 조합원의 5% 이상 참석하면 되고 출석위임장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 **결산 및 예산**

결산보고에서 가장 큰 쟁점은 매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흑자를 내 왔는데 약 15만 불의 적자가 난 것이었다. 10월 협회 정기총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40여 만 불의 흑자를 전망했다가 주총수 일을 남기고 담뱃세 납부액이 계산 착오로 덜 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경비가 발생한 것도 원인이었다. 에어컨과 히팅 시설, 송수관, 스포

일체형 연동 포스시스템

원슬루선과 함께하면 **빠르고, 간편하고, 저렴합니다!**

LCBO READY!!

- ALL LOTTERY TICKET SCAN
- DEBIT MACHINE 연동



Debit & ATM and POS system

링클러 등 설비 교체, 모바일 폐쇄 과정에서 파손품 손실처리 등이 20여 만 달러에 달했다. 오산으로 인한 13개월치 담뱃세 추가 납부액은 50여 만 달러 이상이다. 그러나 이런 비용은 당연히 지출돼야 할 돈들이 만큼 이를 감안하면 결코 경영타트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설명이다.

더 결정적인 것은 과거처럼 흑자 만들기를 위한 인위적인 마진을 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영업 실적을 기초로 삼았다. 격월로 실시한 고객감사의날 행사는 조합원 쇼핑에 최대한의 실익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품목들은 과격적인 세일을 실시했다. 한마디로 마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고객만족을 우선으로 내세운 영업전략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신영하 운영이사장과 심기호 부이사장의 설명에 덧붙여 협회 신재균 회장은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과거의 마진을 인위적 조정을 답습했다면 얼마든지 숫자놀음으로 흑자 보여주기가 가능했지만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합 매출액과 마진율의 등락 폭을 고려하면 1% 마진율 조정은 17만 달러의 이윤이 가감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 심기호 부이사장이 예,결산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

주요 통계로 결산과 예산 자료를 이하 요약 소개한다.

- 2018/2019 회계연도(조합도 협회와 동일하게 회계연도는 8월 31일 마감)결산은 약 15만 달러 적자

- 매출 약 1,770만 달러이며 매출원가를 제한 총 수입은 약 160만 달러, 총 지출은 175만 달러

- 매출에서 담배 매출은 278만 달러, 비담배매출은 1,500만 달러(담배 수익은 약 13만 달러, 비담배 수익은 130만 달러)

- 2019/2020 예산은 매출 1,850만 달러에 총 수입 약 190만 달러, 총 지출은 187만 여 달러로 약 46,000달러 흑자 목표

- 대차대조표상으로 조합의 자산은 유동자산이 약 600만 달러로 전체의 95%를 차지하며 고정자산은 미미한 액수 (협회에 현 웨스트몰 건물

을 매각한 결과임)


- 과거의 대차대조표와 확연히 달라진 점은 건물 매각에 따라 부채 부분에서도 유동부채의 은행차입금과 은행모기지, 장기부채 항목이 제로(0) 처리되고 있음. 건물 매각 대금으로 은행 대출 완전 상환한 결과.

이상이 결산 및 예산 관련 주요 지표들이며 자금관리와 관련해서 건물 매각 대금으로 은행 빚 정리하고 영업 운영자금에도 숨통이 트였으며 150여만 달러 여유자금은 주 거래은행인 KEB하나은행과 또다른 한인은 행은 신한은행에 각각 절반씩 정기예금을 들어놓은 상태다.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50만 불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외부감사 추정) 당초 70~80만 불 사이로 전망했으나 담뱃세 추가 납부에 따른 예기치 않은 절감 효과를 보게 된 때문이다.

새 회계연도에서 주목할 점은 회계와 재고 관리 분야에서의 전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난 회계연도에 이어 더욱 편리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해 예산도 10만 달러를 책정했다.

결산과 예산은 모두 승인됐으며 이방록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보고와 장해민 내부감사 위원장의 내부감사보고가 있었다.

조직 슬림화를 여러차례 단행하면서 현재 조합 운영이사는 총 8명이다. 이중 4명은 협회에서 과건한 자동이사이며(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나머지 4명이 순수하게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 직선으로 선출한다. 감사는 2인이다. (15면에 계속)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p style="background-color: #00bcd4; color: white; padding: 2px;">교통사고, 개인 상해</p> <p style="font-size: small;">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무 과실 보상 소송</p>	<p style="background-color: #00bcd4; color: white; padding: 2px;">교통위반 티켓</p> <p style="font-size: small;">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행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p>	<p style="background-color: #00bcd4; color: white; padding: 2px;">형법</p> <p style="font-size: small;">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p>
--	---	--


- * 형법
- * 소액재판
- * 복권 판매법
-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 * 가정법
- * 세권, 세입자 분쟁
- * 담배 판매법

- * 민사소송
- * 주류 판매법
- * 회사 설립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토론토 웨스트 지구협 정기총회 / 송년회

GTA 정관 제 3장 9조에 의거, 토론토 웨스트 지구협회 정기 총회와 송년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래>

-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총회 6:00 p.m / 송년 파티 7:00 pm
- **장소** : 더프린 서울관 (416-782-4405)
(3220 Dufferin St., #1A, North York)
- **총회 안건** : 2019년 감사보고
정.부회장 선거 및 이사 / 감사 선출
*정기총회 관련 문의 : 416-975-0365, 647-882-5241

<정.부회장 선거 공고>

토론토웨스트 지구협회 정.부회장 선거와 관련해 오는 2019년 11월 28일까지 관심있는 후보자들은 등록하기 바랍니다. (문의 : 선관위원장 고정환 647-529-2281)

토론토 웨스트 지구협회장 김재숙

피터보로 지구협회 연말파티

존경하는 피터보로 회원 여러분 지구협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연말 파티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부동반으로 부디 참석하시어 좋은 시간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

-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후 5시부터
- **장소** : Keystone Golf Club
(2402 Clifford Line, Peterborough, ON)
Tel. 705-876-8061
- **연락처** : 회장 이경석 Tel. 647-882-7404
총무 박승호 Tel. 416-888-3667

- 참석 회원 상품 증정 : Walmart Gift Card(\$25)
-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사오며 순조로운 파티를 위해 참석여부를 12월 6일(금)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터보로 지구협회장 이경석



2019년 12월 프로그램

시민권 신청

- 일시: 12월 9일 (월)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캐나다 정부의 정책 방향
2. 캐나다 시민의 의미
3. 시민권 개정안 안내
4. 시민권 신청을 위한 안내
5. 시민권 시험 및 시민권 선서식 개요

캐나다 국제청과 함께하는 세금보고 자원봉사 활동

- 일시: 12월 12일 (목)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가정상담원 이선경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세금보고 자원봉사 활동이란(CVITP)?
2. CVITP 자원봉사자의 역할
3. CVITP 자원봉사자의 요건
4. CVITP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5. E-file 신청 안내

웰컴투 캐나다 -캐나다 시민권 시험 준비반

- 일시: 12월 12일, 19일 (목) / 총 2회기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박민희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웰컴 투 캐나다
2. 내가 사는 온타리오 이해하기
3.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4. 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정부, 사법시스템
5. 캐나다의 상징, 경제, 지리

부모 초청

- 일시: 12월 16일 (월)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스폰서십의 의미와 자격
2.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절차
3. 신청서와 구비 서류

- KCWA 노스욕센터: 5075 Yonge St., Suite 401, North York
- KCWA 배더스트-핀치: 540 Finch Ave., W. North York

2019년 연말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분위기, 맛있는 음식,
즐거움과 유익한 공연, 축하하는 여인들께 가족, 연인,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소박한 이웃과 축하를 영구하는
여인들께 가정을 돕기 위한 서비스 운영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KCWA와 함께 하는
Community Fun Night!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9시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North York

참여방법: 사전에 \$20, \$30, \$50를
구입 후 행사 당일 참석하세요.

티켓문의: 416-340-1234 / www.kcwa.net

캐나다인연성회

우리들의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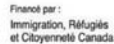
Empower Us Project
Expressing Senior Community Participation through Storytelling

한인 이민 1세대 분들은 어떤
이유로 캐나다에 오게 되신 걸까요?

1960 - 1960's
정착 당시에는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영상 촬영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2월 7일 (토) 1시-3시
540 Finch Avenue West

양복 및 웨딩드레스를 대여할 수 있는
기능이 탁월한 의류점인 경우 방문하여
프로그래밍 소개 및 영상 촬영을 도와드립니다.





카드 수수료 1.5% → 1.4%

흡족못할 수준에 주의할 점도 많아

업계 전체가 달라들어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위해 긴 세월 싸워온 끝에 연방 정부는 주요 신용카드 회사들로 하여금 평균 거래 수수료를 1.4%로 하향 조종기로 했다. 현행 1.5%에서 0.1% 포인트 낮춘 것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카드회사들은 또 향후 수수료에 대한 세금(GST 또는 HST)을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수수료를만 놓고 보면 그다지 대단한 것으로 보기 힘들지만 여하튼 과거의 인상 일변도 정책에서의 방향 전환임은 분명하다.

온주편의점협회(OCSA)를 비롯한 소매업 단체들은 이 조치와 관련해 업주들이 주의해야 할 다음 몇가지 포인트를 꼽았다.

첫째, 카드 회사 또는 카드 대행사들이 낮아진 수수료를 적용해 실제로 소매업소가 금전상의 절약 효과를 보고 있는지 확인할 일이다.

둘째, 이들 회사들이 불공정한 거래 계약을 맺거나 자칫 오인할 여지가 있는 계약을 맺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계약 조건을 살필 일이다.

셋째, 계약 해지 시 거액의 위약금 등 불합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수수료 인하를 보전하기 위해 소매업소에 불리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넷째, 은행과 직접 계약돼 있지 않은 제 3의 대행 서비스 업체들의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평판이나 신용도, 문제발생 시 복구 서비스 수준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수수료에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독립 소매업소의 최대 단체라고 할 전국독립사업자연맹(CFIB ;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CFIB는 일단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소자영업이 거둔 가장 최근의 승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짓 정보나 부당한 계약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도 당부했다. OCSA가 당부하는 위의 주의사항과 동일한 맥락이다.

연맹의 덴 켈리 회장은 “우리 연맹은 카드사의 공정성을 지난 10년이 넘도록 촉구해왔으며 이제 비로소 연방과 거대 카드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소식을 듣게 됐다”면서 “다양한 프리미엄급 신용카드가 등장하면서 20~40%까지 수수료가 오르기도 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라고 평했다. 연방 정부는 또한 카드 결제 대금에 붙는 HST 또는 GST 몫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상인들에게 연간 약 5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추산된다.

켈리 회장은 “수수료 인하 정책은 연방 자유당 공약의 하나로 오랜 세월 강력히 권해왔던 사안이며 그간 판매세 걷어 정부에 건네주는 수고를 하는 상인들에게 아주 부당한 고액 수수료 관행”이었음을 상기시켰다.

CFIB에서 밝힌 다음 통계들은 주목할 만하다. 소매업주들의 거의 1/3이 카드회사로부터 걸려오는 귀찮은 전화로 애를 먹는 경험이 있다. (*현재의 이용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로 바꾸라는 전화). 또, 18%는 잘못된 메시지로 오해를 경험했고 16%는 사기 계약을 겪었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불만도 CFIB본부에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마스터카드사는 손님의 반품 환급이나 사전 승인에 따른 수수료를 새로 도입했다. 그리고 비록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는 하지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몇몇 거래 유형에서 부과되던 수수료는 인상시킬 예정이다. CFIB는 이런 여러 불만이나 카드사의 꼼수 보전책을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고 한다. CFIB는 전국적으로 중소 업체 약 11만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

(주)

하이쿨 텍

냉동·히팅

“신속하고 끝난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Canada Heating & Cooling Licensed Technician

전문적인 기술자가 동체 기술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 업소용 - 냉동, 히팅, 에어컨, 워킹콜러/후리지, 덕트, 케노피
- 가정용 - 냉장고, 히팅, 에어컨, 전기, 배관 외
- 상업용 - 공장, 상가 및 교회 건물관리 (냉난방 시스템 외)
- 세탁전문점 정비 일체 수리
- 자동차어, 수중모터 및 보트엔진 수리 외

HI-COOL TECH

에어컨 설치 문의 환영
김순석 (Peter Kim)

장거리 출장수리 가능

신용과 책임을 우선 합니다

416.909.7114

필 지구협 정기총회 정·부회장 선거

GTA 정관 제 3장 9조에 의거, 필 지구협회 정기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래>

- **일시** : 2019년 12월 12일 (목) 1:00 p.m
- **장소** : 만두향
(169 Dundas St E, Mississauga)
Tel. 905-897-3355
- **안건** : 회계 결산 보고 / 정.부회장 선거

*필 지구협 송년 파티 겸 가지는 정기총회이며 정.부회장 선거도 함께 치르니 많은 회원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참석 여부 및 정.부회장 선거 관련 문의는 416-505-0448 또는 905-813-1333 으로 문의바랍니다.

필지구협회장 이수봉

스카보로 지구협회 2019 송년회

-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후 9시
- **장소** : 샤론가든
3601 Victoria Park Ave. (#119)
Scarborough ON.
Tel. 416-885-8886
* 부부동반 환영
- **연락처** : 416-759-4503



스카보로 지구협회장 엄종호

노스욕 지구협회 정기총회 송년 파티 및 회장 선거

■ 정기총회 소집공고

- 가. 일시 : 2019년 12월 19일 오후 13:30
- 나. 장소 : 더프린 서울관
3220 Dufferin St., #1A, North York (416)782-4405
- 다. 안건 : 회장단/이사/감사 선출,
결산 및 예산 승인, 감사보고, 기타

■ 2020/2021회계연도 회장 선거 공고

- 가. 입후보 등록 마감일 : 2019년 11월30일
- 나. 회장단 선출일 : 2019년 12월 19일 13:00
- 다. 장소 : 더프린 서울관

■ 송년파티

- 가. 일시 : 2019년 12월 19일 14:30
- 나. 장소 : 더프린 서울관
- 다. 참석대상 : 정회원
(부부동반 참석 가능, 참석회원에게 \$100상당의 선물 제공)

2019년 11월 14일

노스욕 지구협회장 방 성 덕
노스욕 선거관리위원장 이 구 업

이토비코 지구협 정기총회 정·부회장 선거

- **일시** : 2019년 12월 29일 (일) 오후 8시
- **장소** : 더프린 서울관
3220 Dufferin St., #1A, North York
Tel (416) 782 - 4405
- **안건** : 회계 보고
정.부회장 선거 총회
연말파티 (온가족 참여)
- **문의** : 이두승 (416-895-1277)

*선거문의

선거관리위원장 강기백 (416-252-0080)

이토비코 지구협회장 이두승

전국 卍別 베이핑제품 관리 · 통제

정책 비교

노바스코시아, 국내 최초로 향가미 제품 금지책 언급

P.E.I 19세 → 21세 검토 중



와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 주별 정책을 요약해서 소개하니 비교 검토하며 향후의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 B.C

B.C정부는 지난 11월 14일 ‘10 포인트 플랜(10-point plan)’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베이퍼 팻에 함유되는 니코틴 용량 감소, 미성년자를 유혹하는 향가미 제품에 대한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소년 베이핑 제품 차단 공익 캠페인 지원 강화와 전자담배제품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광고를 금지시키고 전자담배 포장에 건강경고문구가 인쇄되도록 요구한다. 앞에서 언급한 공공장소란 예를 들어 공원, 버스 정류장 등이 대표적이다. B.C정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 제정을 서둘러 완료하고 내년 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 알버타

알버타는 주정부 단위에서 베이핑을 취급하는 특별한 법은 없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일정 부분 통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이용을 금하는 정도이다. 주정부 보건부 타일러 센드로 장관은 포괄적인 담배 관리법의 전면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는 베이핑 제품에 집중적인 규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베이핑 제품의 유해성에서 주민 보건을 지키는 목적하에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할 전망이다.

■ 사스캐추안

▲ 미성년자 베이핑 소비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연방은 물론 주정부 차원에서도 저마다 통제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전자담배는 베이프라는 애칭까지 얻어가며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비흡연자까지 침투해서 대중화, 보편화되는 가운데 미성년자 노출에 대한 부모들과 공중 보건 단체들의 우려감이 높아가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주만이 아니라 모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우려를 의식했음인지 연방 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강도높은 통제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며 업계 특히 편의점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연방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다양한 형태의 판촉 활동을 허용하는 관대한 정책으로 큰 환영을 받았던 것이 불과 1년 전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느닷없이 보건부에서 내년부터 판촉활동을 금지시켰다고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캐나다 각 주별 전자담배에 대한 정책들이 최근에

사스케추완 정부는 기존 담배관리법 체계와 전체 조화를 맞추며 베이핑 제품 관리를 아우르는 담배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은 18세 이상의 연령에게만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미성년자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에서의 이 제품의 판촉은 금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 출입이 잦은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쇼펄, 영화관, 놀이 공원 등이다.

베이핑 제품 이용은 또한 공공장소 예를 들어 학교, 학교 운동장까지 포함해 공공건물 내부와 외부 근처까지 아우른다. 정부는 개정된 새법이 내년 초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 매니토바

매니토바는 『비흡연자 건강보호와 베이핑제품에 관한 법률』(Non-Smokers Health Protection and Vapour Products Act)을 통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베이핑을 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학교, 도서관, 병원, 몰, 식당, 실내 작업장 등의 공공 장소 내부에서 베이핑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매니토바 정부는 일반 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의 광고와 판촉도 금하고 있다.

■ 온타리오

온타리오는 이미 우리들의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익숙해있으나 복습차원에서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본다. 2020년 1월 1일부터 온타리오 전역에서 전자담배의 판촉활동이 금지된다. 편의점이나 주유소 병설 편의점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이 주내 미성년자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소비 증가 실태를 보고하고 있는 새로운 조사자료를 토대로 내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베이핑 제품 판촉은 전자담배 전문취급업소인 베이프숍과 마리화나 소매업소에서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편의점 업체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정부 비판과 재검토 요구를 강력히 벌이는 중이고 이 캠페인은 협회가 적극 앞장서고 있다. 물론 전문 베이프숍이나 마리화나숍을 출입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 호 14면과 15면에서 자세히 살피고 있듯이 연방정부 조차도 전문 숍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위법 행태를 극히 우려하고 있는 수준이다.

■ 퀘벡

퀘벡에서는 18세 미만의 연령에게는 베이핑 제품의 판매와 공급이 불허되고 있다. 그래서 제품 판매 시에 소매업소는 반드시 연령 확인을 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도 금지다. 전자담배 광고는 85% 이상인 성인 구독을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를 예외적으로 하고 금지된다. 업소에서의 전자담배 진열 또한 금지되는데 18세 미만의 손님 눈에 띄지 않기 위함이다. 하지만 전자담배에서 사용하는 액상에 향이나 맛을 가미한 것은 여전히 합법이다. 왜냐하면 액상 자체를 담배 제품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은 한국 정부의 기준과 유사하다. 모국에서도 미성년자 베이핑 소비가 불안할 정도로 과급이 커서 전자담배 관련법 체계를 개정하는 작업이 보건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 뉴브런즈윅

19세 미만에게 전자담배 및 액상 판매가 금지돼 있다. 또한 이 연령대 미만은 성인과 동반하지 않는 이상 단독으로 베이프숍 출입이 금지된다. 전문 베이프숍이라 하더라도 옥외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업소 내부라 하더라도 각종 홍보물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때 눈에 들어오면 안된다. 상당히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편의점 등 일반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업소에서 판촉물을 금하고 있는 사항들은 전자담배에도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 멘솔을 포함해 향가미 일반 담배 역시 이곳에서는 판매 금지다. 그러나 전자담배까지는 아직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타 주와 마찬가지로 앞으로가 문제다.

■ 노바스코시아



▲ 지난 10월 2일, 국내 최초로 “향가미 전자담배 판매 금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노바스코시아 스티븐 맥닐 수상.

노바스코시아는 전자담배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한 통제를 발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5년부터 19세 미만의 손님에게는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돼 왔다. 일반 담배 흡연이 금지된 곳은 동일하게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하고 있다.

전문 베이프숍도 업소 밖 광고 홍보가 금지돼 있다. (예를 들어 쇼윈도우 포스터 부착을 통해 외부 행인 눈에 메시지나 그래픽이 보이는 것 따위) 지난 10월 스티븐 맥닐 수상은 베이핑 제품으로 향가미 제품 또한 판매 금지를 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초강력 규제책으로 내놓은 것이라 과급효과에 대해 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수상은 또 일련의 규제령 개정을 검토 중인데 일반 담배 취급에 필요한 것과 동일하게 베이핑 제품 판매에도 영업허가증(라이선스)을 별도 발부하느냐 마느냐의 이슈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 P.E.I

19세 미만에게 베이핑 제품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일반 담배 판매가 금지된 곳은 동일하게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되고 있다. 전문 베이프숍 또한 업장 외부에서 행인들 눈에 띄는 방식으로 제품이나 홍보물이 전시해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다른 주들과 공통이다. 일반 소매업소에서 베이핑 제품 시연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공장소나 일터에서 베이핑을 흡연할 수 없다.

베이핑 제품의 건강 유해성 관련한 특징이나 제품 특성에 대한 호도된 정보를 주입하는 여하한 광고도 불법이다. P.E.I는 현재 캐나다 역사상 유

레없는 초강력 연령제한 법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원 개인 상정 법안인데 일반담배든 전자담배든 담배라고 생긴 것은 구입 최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1세로 하지는 발의안이다. 또한 향가미 전자담배는 무조건 판매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통과 여부에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마도 의원이 미국쪽에서 21세 연령 붐이 이는 것을 보고 참조했으리라 여겨진다.

■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19세 미만에게 베이핑 제품 판매 금지다. 일반 담배 판매 금지 지역에서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이곳은 베이핑 제품 판매 일반 소매업소의 내부건 외부건 광고나 홍보물 전지가 이미 금지돼 있다. 전문 베이프숍은 광고 관측이 가능하다.

■ 유콘(준주)

이곳은 현재까지 주정부 차원의 베이핑 통제 관리에 관한 이렇다 할 법이 없다. 다만 관련법이 지난 10월 의회에 상정됐고 통과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베이핑 제품 구입 최저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품 광고나 전지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NWT(준주)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는 지난 8월에 『흡연관리 및 감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아직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기존 법령의 개정이다. 달라진 점이 바로 베이핑 제품의 판매 전지 광고 관측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전자담배에서 사용되고 있는 함유량이나 원료 등 내용물에 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 법은 19세 미만에게 판매 금지한다는 것이며 베이핑 제품을 모방한 식품류들의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공연히 담배 피우는 기분이 들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진짜 담배나 베이퍼로 옮겨갈 수 있다. 또한 학교, 병원, 풀장, 위락시설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베이핑 소비는 금지될 것이다.

이 법의 발효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 누나붓(준주)

누나붓에서는 베이핑 관련한 법규정은 베이핑 소비 가능한 장소와 베이핑 금지 장소 등에 대해서만 다룰 뿐이다. 하지만 보건부 공중보건 담당 국장의 말에 의하면 기존 담배관리법(Tobacco Control Act)에 전자담배 관련해 신설 규정을 통해 강력한 통제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입법화가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부 소속 마이클 패터슨 박사는 “새로 마련하는 법은 일반 담배 규제를 벤치마킹했으며 향가미 제품 금지, 외관이 화려해서 미성년자에게 유혹으로 느껴질 포장 금지 등 전자담배에 대한 다양한 규제 조항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

www.okbacanada.com
협회 웹 주소 변경 예정

협회 웹사이트가 새 단장을 하며 주소도 바뀔 예정이다. 현재의 주소는 www.okba.net 이며 앞으로 변경될 주소는 www.okbacanada.com이다. 사실 지금도 새 주소로 방문해도 기존 주소와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두 사이트가 동시에 운영될 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주소는 영원히 사라진다. ■



NOTICE > 2019/2020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 소집
2019년 KBA 협동조합 주주총회 공고

Saputo

유제품 2월 3일부터 인상

우유가격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초에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사푸토가 최근 협회에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유제품 가격이 내년 2월 3일부터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오를 것이라고 한다. 가격 인상 결정은 캐나다낙농위원회(CDC ; Canadian Dairy Commission) 소관이다. 오름폭은 약 1.97% 가 될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유제품 인상은 고작 1.6%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타 다른 일반 식품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11.2%나 오른 것에 비하면 미미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 하겠다.

제품에 따라서는 8%가 인상되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푸토는 내년 2월 3일이 되기 전에 제품별 인상폭이나 인상가를 알리는 세부 목록을 금년 말 안에 통고할 예정이다. ■



한인단체 활동보조비 지원 사업

OKBA 성장 모태 한인사회 보답 차원

본부협회가 한인 커뮤니티의 비영리 단체로 공익 목적의 자선사업이나 한국 문화와 전통 계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 사업을 펼친다. 지난 정기총회 예산안 보고에서 밝히면서 주목을 끌게 된 이 사업은 이미 동포 언론을 통해 몇 차례 소개돼 알려질 만큼 알려졌으나 아직 정보를 접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본 실험 지면을 통해서도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

한인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자선 단체들이 있고 한국 문화와 전통을 계승 보존하기 위한 한민족 자긍심 고취 사업을 하는 단체들도 있다.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은 이미 1기 임기를 수행하던 때에도 협회의 성장 모태는 결국 한인 사회를 배경으로 한 것이며 언젠가는 협회 자산이 한인 사회로 환원되어야 할 때가 온다는 각오로 임할 것을 자주 강조했다. 이런 입장에서 무궁화 요양원 사업에 적자 예산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난 회계연도에 5만 달러를 쾌척했었다. 비록 주변 여건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 회수하기는 했지만 임기 2기를 맞이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한인 비영리 자선단체나 문화 전통 계승 사업을 하는 기관에 지원하기로 결심한 것이고 이미 예산으로 확보했다.

이하 신청 조건이나 배제 조건 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해당 조건

한인 사회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

- 1) 동포 사회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극빈층, 자폐아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
- 2) 동포 차세대를 위한 한국 문화 전통 전수 및 모국과의 유대감을 고취하는 사업

■ 제출 서류

상기 해당조건에 부합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협회에 제출토록 한다. 제출은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하며 직접 제출 가능하다.

- 1) 지원요청 공문(협회 소정양식 없으며 해당 단체 자체 공문으로 함)
-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단체 또는 자선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사업계획서(해당 사업의 내용과 추진 일정, 과거 기록 등 세부 사항)

주소 :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FAX : 416-789-7834, 이메일 accounting@okba.net / 문의전화 : 416-789-7891

신문 지상을 통해 신청일을 11월 29일 마감으로 공지하였으나 아직 홍보가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해 12월 까지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지원 배제〉

단순 친목단체(동호인, 학연/지연/혈연 단체 등), 일회성 행사, 개인영리와 직·간접적으로 결부된 행사나 사업, 종교단체 및 이들의 활동, 정치관련 단체, 외부로부터 해당 사업에 적절한 지원금을 제공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유의사항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급 및 차기 지원 배제 조치하며 행사나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 결과 보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전자담배 정부 정책 이중잣대?

베이프숍과의 형평성에 불만 제기



▲ 내년부터 온타리오에서는 편의점에서 오른쪽과 같은 판촉물이 전시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전문 베이프숍은 판촉물 전시에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고 베이프숍의 관련 단체가 경쟁관계로 여기는 편의점 업계를 배제하기 위한 막강한 대정부 로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방 보건부의 최근 실태 조사에 따르면 베이핑 제품 전문업소 - 일명 '베이프숍'(vape shop)의 75% 이상이 연방법에서 금하고 있는 판매 및 판촉 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법 관행에는 케이크, 쿠키, 캔디 등의 맛이나 향이 가미된 제품들이 대거 포함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미성년자를 유혹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전국지 글로브앤메일(The Globe and Mail)은 지난 11월 16일자 특집 기사를 통해 전자담배 제조사들도 연방법을 위반하며 자사 제품 판매와 판촉을 하고 있다는 연방 보건부 대변인 머리스 듀렛씨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일상화된 위반 유형은 아이들이 딱 좋아할 만한 향이나 맛을 부각시키며 판촉 수단으로 사용자 경험담을 동원하는 방식이다. 연방법에서 금하는 경험담 증언 방식에는 사람이나 캐릭터, 동물을 동원하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

전국편의점산업협의회(CICC)는 정부의 이런 발표가 있는 직후 베이핑 제품이 미성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편의점업계의 일차적

인 관심사로 이를 성실히 지키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와 함께 성인 흡연자가 베이핑 제품을 일반 담배 금연을 위한 과도기적 수단으로 활용할 기회 제공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사까지 포함한 CICC와 달리 순수 소매업체만으로 조직된 OCSA와 협회는 온주 보건부가 내년부터 베이핑 제품 홍보 판촉을 전면 금지시키려는 계획을 최근 발표하기 전후로 보건부 고위 관리와의 접촉을 통해 정책의 불합리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편의점 업계가 담배와 복권 등 연령제한 품목들에 대해 얼마나 연령확인을 철저히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그런 반면 전문 베이프숍이 법적 통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이들 업소에서는 홍보 판촉이 보장되며 편의점만 미성년자가 출입하기 때문에 포스터 등 전시홍보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CICC에서도 앤 코샤왈라 회장의 목소리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많은 베이프숍들이 국내에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가 합법화되기 전

부터 벌써 베이핑 제품을 팔아왔었다. 이런 위법한 행태들에 기반해서 청소년들의 입맛에 어필하는 버블검, 캔디 케인 등의 형태로 된 수백가지 제품이 난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코싸왈라 회장의 지적마따나 편의점 소매업계는 전문 베이프숍의 무질서한 상거래 행태와 달리 연방이 승인하는 제품에 한해 엄격하게 관리 판매해오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에 어필할 수 없고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철저히 전자담배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스테리 쇼핑을 통해서 입증된 객관적 사실로 2018년 온주 정부 조사 자료도 편의점 연령층 크 성실도가 96%로 나왔다.

연방정부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나온 연구보고서 『Canadian Tobacco, Alcohol and Drug Survey』에서는 베이퍼 경험 미성년자의 50% 가까이 친구나 친척을 통해 얻어 피웠거나 사서 나뉘거나 이들로부터 구입했다고 증언했다. 주목할 수치는 구입처다. 업소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낮지만 23%가 전문 매장에서, 12%는 편의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매장의 실패가 어떤지를 확연히 드러내주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

미성년자 전자담배 노출의 심각성과는 별개로 편의점 업계는 성인 흡연자 대상으로 금연 보조물로서의 전자담배 유용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는 객관적 통계자료나 외국 사례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호소력을 높여가고 있다. 다만 캐나다 정부만 금연을 위한 베이핑 제품의 효과에 있어 입장정리를 미루고 있다. 한시바빠 명확하게 결정짓고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B,C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B,C정부가 최근 향가미 전자담배를 편의점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것이 발단이 돼, 여타 주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미성년자에 어필할 수 있다는 우려로 편의점을 옥죄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인데 결국 이는 미성년자를 베이프숍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오직 성인만 출입할 수 있는 전문 업소의 영업행태가 앞서 보여준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니 이런 전망이 결코 무리나 과장이 아니다.

B,C주의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공중 보건을 위해서 당초의 목적과는 역행하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적당한 맛이나 향가미 베이핑 제품은 성인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소비로 이행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망각해서는 안된다. 절대 다수의 성인 흡연자들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다. 따라서 금연 중간 단계로 선택하는 전자담배 역시 정품이라면 향가미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다.

멀리 떨어진 전문 베이프숍까지 불편을 무릅쓰고 가야한다는 것은 꽤나 불합리해보인다. 이는 도시보다 외곽쪽으로 가면 이야기가 훨씬 더 심각해진다. 시골지역에서는 손쉬운 쇼핑처가 대부분 편의점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여건에 역행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정책이 아니다.

연방이건 주정부가건 미성년자 노출을 막는다는 명분에만 집착해 정품만을 취급하고 금연 보조수단으로서의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편의점에게는 벌을 줄 방안만 모색하고 베이프숍에는 숨방망이 처벌이나 편파적인 혜택을 준다면 공감할 편의점 업주는 단 한명도 없다. ■

토론토 웨스턴·욕 지구협회 정기총회 정·부회장 선거

GTA 통합정관 제 3장 9조에 의거, 웨스턴·욕 지구협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 **일시** : 2020년 1월 9일(목) 1:00 p.m
- **장소** : 더프린 서울관 (416-782-4405)
(3220 Dufferin St. North York ON. M6A 2T3)
- **안건** : 정·부회장 선거
2019년, 회계 결산(감사) 보고

※웨스턴·욕 지구협회는, 지구협회의 경비절감 차원으로 신년 하례식 겸, 정·부회장 선거 및 정기총회를 부득히 같은 날 치릅니다. 회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석 여부 및 정·부회장 선거관련 문의는, 647-570-1333 또는 647-302-3770 으로 문의바랍니다.

[웨스턴·욕 지구협회, 정·부 회장 선거 공고]

토론토 웨스턴·욕 지구협회 정·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등록 마감합니다.

*문의 : 선거관리위원장(연상흠 416-654-8066)

토론토 웨스턴·욕 지구협회 회장 조용상

<6면에 이어> 12월 3일 조합 주주 총회 성료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 파견이사 4명의 인준이 통과됐고 조합 직선이사 4명 선출도 했다.

8명의 운영이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다.

- 운영이사 8명 : 신재균, 송명현, 신영하, 김대용(이상은 협회 파견이사. 순서대로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허창훈, 류승진, 심기호, 백사열(이상은 조합원 직선)

- 감사 : 이만석(협회 감사위원 겸임), 장해민

회의는 4시에 종료됐다. ■



아프리카 / 라틴계

내집같은 편의점



퀘벡시티 데판뇨 '모콜로' 이야기



▲ 아프리카 이민자로 역척과 끈기로 성공해 편의점 3개를 운영하는 또순이 마들레네 자리도카씨. 아프리카, 라틴계 식품을 주축으로 틈새시장을 뚫어 성공한 대표적 모범 사례이다.

퀘벡 시티의 아프리카 커뮤니티를 배경으로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알차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본 지면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편의점(불어로 데판뇨) 상호는 모콜로(Mokolo). 주인은 마들레네 자리도카(Madeleine Zari-Doka). 여자로서 불굴의 의지와 용기, 역척이 퀘벡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이자 퀘벡 주도(州都)이기도 한 퀘벡 시티에 3개의 편의점을 소유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한 마디로 정신 승리라 하겠다. 이하 업계전문지 CSN의 특집 인터뷰 기사를 요약 소개한다.

3개 가게 중 제일 먼저 오픈했던 가게에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마들레네는 첫마디를 “온갖 경험을 다 해봤다”로 시작했다. 인생여정이 파란만장했음을 알리는 말이다. 가게는 계단을 내려와 지하에 꾸며져 있다. 다양한 수입 식품, 미용제품, 온갖 잡화상품 등 현재 작지만 빠르게 커나가고 있는 이곳 아프리카계 동포들과 라틴계 주민과 학생들에 어필하는 상품 위주로 취급되고 있다. “열심히 일해왔고 현재까지 성취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자평이다.

카메룬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의 작은 마을 바부아라는 곳에서 대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고 자

란 자리도카씨는 사업하는 아버지의 옷가게와 여인숙 운영을 도우며 성인이 됐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장사하는 쪽으로 일찌감치 몸을 담은 셈이다. 고작 12살밖에 안먹은 딸에게 그녀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 타고난 사업가가 될 여건이다. 그나이에 그녀는 벌써 머리맡아주는 나름의 비즈니스를 운영했다. 아버지는 그녀보고 학교 친구들과한테 팔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을 쥐어 주며 팔아오라고 시켰다. 좀 심하다 싶은데 아이는 잘 따라 했다.

이후 한 기독교 단체의 후원하에 몇나라를 돌며 여행할 기회를 가졌는데 아프리카라는 곳이 늘 내전이 있고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술한 전투들이 벌어지는 위험한 곳이라 그녀도 어떤 나라의 반군에 붙잡혀 한달 가량 투옥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03년 어수선한 틈을 타 탈출에 성공했고 운 좋게도 캐나다 워니펙에 오게 됐다. 그리고는 얼마 안있어서 퀘벡으로 이동했는데 여기서 다양한 일을 했다. 비즈니스 관련 강좌도 듣고 열심히 일해 2007년에 캐나다청년사업지원재단(Canadian Youth Business Foundation)에서 15,000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다. 저리 용자였다.

이 돈으로 원래 계획은 미장원을 차리기로 했으나 마음을 바꿔 편의점으로 관심을 돌렸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물건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었다. 사실 슈퍼마켓 어디를 가도 구하기 어렵다.

그녀는 상호부터 정했는데 Moniker Mokolo로 아프리카 토속어인 이 단어는 big이라는 의미다. 또한 중앙 아프리카의 한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유명한 시장 이름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모콜로라는 업소는 2008년에 오픈했고 퀘벡시티 서쪽 작은 건물의 지하에 차려졌다. 라발 대학 캠퍼스가 이웃해있는 지역으로 이 대학의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학교 기숙사나 근처에서 살며 학교를 다닌다. 이후 같은 건물의 1층에는 아랍계 식품점이 오픈했다. 지하에는 아프리카, 1층에는 아랍... 소수민족 다국적 식품점이 차렸겠다고 해야 할까.

모콜로는 주전부리나 일상생활품 이외에도 가발, 머리카락 보조물, 미



▲ 아들이 운영하는 모콜로 2호점. 대학 캠퍼스 근처에 자리하고 아프리카, 라틴계 학생과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커 나가고 있다. 가족 경영체제로 흔한 헬퍼 한명 안쓰고 혼자서 각각 가게 하나씩 운영한다.

용제품 등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도 추가했고 아프리카 취향의 오일, 소스, 생선이나 양고기, 닭고기 가공식품 등이 베스트 셀러가 됐다. 역시 먹는 것은 자기 나라 전통 음식에 대한 향수를 이겨낼 재간이 없으니 잘 될 밖에 없는 일이었다. 기막힌 틈새시장(niche market)을 뚫는데 성공한 것이다.

종업원없이 혼자 운영하는데 아침 10시에 열고 요일마다 조금 차이를 두고 8시 또는 9시까지 한다. 일요일만 오후 1시에 열고 8시에 닫는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일요일 오전에는 예배를 보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나날이 발전해갔고 아프리카 커뮤니티 이벤트에 빠짐없이 후원을 하면서 유대관계도 탄탄히 쌓았다. 사업 성공에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자리코씨는 손님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이 업소를 지킨다. 그녀 업소는 아프리카계만이 아니라 라틴계 손님들도 단골로 찾는 장소다. 이쪽 계통 사람들이 좋아 할 식품류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두 민족은 식품 취향이 꽤 유사해서 양 쪽에 모두 먹힌다고 한다. 처음 시작은 이 특정 소수민족을 배경으로 시작했으나 이제 사업이 발전해서 비아프리카족 사람들, 백인들도 많이 찾는 가게가 됐다.

2014년에 그녀는 폐업하는 편의점을 재고값만 주고 인수해서 두번째 가게를 열었다. 모콜로 2호점이다. 이 가게도 라발 대학 캠퍼스에 붙어 있다. 그리고 1층에 있다. 1호점 모콜로와 동일한 아이템들로 갖췄다. 다만 여기에 북미주 전형적 편의점 단골 아이템들이 추가됐을 뿐이다. 이 가게는

그녀의 올해 22세 된 아들 윌리엄이 운영한다.

2년 전인 2017년 그녀는 세번째 가게를 샀다. 모콜로 3호점이다. 그리고 25세의 딸 리디아 앤네트가 운영한다. “모든 것은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녀 말대로 이제 여유가 생겨 여름이면 몇주간 모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친정에 가서 쉬다가 온다. 대담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군이 사람 납치하기를 예사롭게 하는 위험지역을 신분을 위장해서 다녀 오기도 한다. 위험지역에 난민을 도우러 가는 것이다.

3개의 가게는 종업원 한명없이 본인, 아들, 딸이 하나씩 꿰차고 잘도 운영하고 있다. 그녀가 강조하는 3가지 팁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1. 돈을 위해 일하지 말라.

그녀가 상인이 된 첫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 때문이란단. 봉사가 우선이고 그다음이 돈이다.

2. 인내하라.

장래를 내다보고 쉽사리 낙담하지 않고 버텨야 한다.

3. 행운을 믿어라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초조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가진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행운을 믿으며 일하라. ■

해가 떠오른다

얼썩! 오랜만에 일간신문 첫 페이지에 우리동포사회에 해가 뜬다는 소식이다. 주먹만한 글씨로 대서특필 된 것을 확인하며 놀라왔다. 아리랑 요양원(가칭)의 깃발을 꽂는다는 기사다.

요즘 세상살이가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찌푸리며 걱정 근심으로 또한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에 우울하기 그지없었다. 매일 펼쳐보는 신문들의 기사 읽기가 참으로 난감하고 야속한 사연들로 거의 날마다 채워져 있지 않았던가!

뭐 각별히 의도적인 편집으로야 지면을 메우려고 하진 않았겠지, 이해를 하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가 참으로 험난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런데 새 요양원 건립작업 본격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다니 동포사회에 밝은 해가 떠오르고 모처럼 하늘을 펼쳐 보이는 것 같다.

"구김유정!" 사자성어가 아니다. 기라성같은 4인의 성씨들, (구자선, 김연백, 유동환, 정창현) 4인방의 이름이다. 그들이 발을 걸어붙이고 뛰어 들었다. 생업을 제치고 노년을 위하여 우리도 못할게 무엇이냐고 팔뚝까지 걷어올리며 동아줄을 끌어내린 것이다.

350만 불의 불꽃이 밝혀 주던 한해가 가기 전에 또다시 촛불을 밝히려 나보다. 중국인들 850개 침상에 비교하면 겨우 130여 침상이란 초라함에 가슴이 움추러들기도 하지만, 수백만을 웃돈다는 이들 이민자들의 삶의 형태야 산지사방에 정착하여 이나라의 한모퉁이를 점령하다시피 한 대단한 민족이 아닌가!

참새와 기러기의 날갯짓을 어찌 비교할까만 시작이 반이란 진리를 터득하고 실천한다면야 이루지 못할 게 없다고 활개를 치며 첫발걸음을 함께 한다니 대답하고 기발한 착상에 박수를 친다.

몇년간을 투신하여 종잣돈을 마련했던 과정에 설왕설래 소리소문들, 350만불의 행방이 찢겨 반쪽이 되어버린 오늘의 결과가 안타깝기 그지없었지만, 10만 동포사회가 어찌 한목소리만으로 대사를 치를 수 있을까! 몇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기부금의 산출내역을 추산해본다면,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들 참으로 대견하고 야무진 발상들이 총동원되지 않았다면, 그 거금의 기부금을 산출해 낼 수 있었겠는가 싶다.

누가 뭐래도 동포사회 언론사들과 종교단체들이다. 반세기 이민사에 남다른 투지와 열정으로 부를 창출한 흥길동같은 인사들, 아니 동포사회의 불륜버그나, 스티브잡스와도 비슷하게 너덕한 대열에 끼여든 준 재벌들의 활발하고 열띤 참여가 없었다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 10만 동포들 가운데 1,500여 가족들로 하여금 활력에 불을 뿜어 냈던 것이다. 이제라도 불씨가 돼 한번 하자고 덤벼든 억척스런 발걸이 힘차게 출발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누군가는 해야 했기에 손바닥을 쳐가면서 불가능의 실체를 가능성의 성취로 바꿔보자는

도전에 횃불을 흔들어 대는 것이다.

건전하고 의젓하게 걸어온 반세기 동포사회를 보자. 가방 하나 들고 빈손으로 이 나라에 정착한 너와 나의 초창기 이야기들, 정착지에 무지했었지만 우리는 열정을 다해 이 나라에 정착했었다. 오직 근면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했던 반세기의 꿈을 이뤄 낸 것이다.

우리가 악을 쓰고 견뎌 왔었던 오늘의 우리 동포사회의 주변을 살펴보자. 미확인된 3백여 교회들, 중형, 대형교회들 거의 모두, 각자의 자산을 창출해냈고 자기 교회건물을 마련했다.

요양원의 침상이 먼저일 것 같은데, 영혼구원을 위한 몸된 교회건물이 첫번째라면 하나님의 각별한 배려였을까? 한인회, 노인회까지도 우리들의 건물을 소유하고있다. 반세기 전에 유대민족 자산의 기본이었던 구멍가게들, 오늘의 "실협"이란 단체는 바로 편의점을 그들의 생활 터전으로 삼은 결과다. 골목상권의 대표적 업종이었던 편의점 업계를 우리 민족이 파고들어 한때 3천개 업소에 육박했던 위세를 자랑할 만큼 커다란 조직으로 일궈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다. 그 단체가 동포사회의 소외층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 또한 요양원 건립 소식 못지않은 희소식이다.

몇천불 씩 월급을 받는 신재균 협회장이 아니다. 협회 출퇴근 경비 정도 야나야가라 먼 거리를 왔다갔다 하니 협회가 지원하겠지만 그냥 무료 봉사하는 것이다. 지난번 무궁화 요양원 모금액의 30%까지는 운영비로 사용함이 가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운영비가 100만까지 써도 무방하다는 논리아닌가. 법적 허용치를 근거로 그리 주장하고 실제로 그리 집행됐다면 동포사회의 여론으로부터 벼락이 떨어졌을 것이다. 어느 누가 형편이 어찌되었든 헌신과 봉사 정신으로 이끌어지는 사회단체에 발을 들여 놓았다면 법적으로 허용됐다는 근거를 가지고 수고비나 활동비라는 명목에 결코 연연해서는 안될 것이며 가슴을 비워야 마땅하다.

생업을 제치고 혼신의 힘을 쏟아 내야 하는 자리는 기본적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때야야 부작용의 틀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감투라고 완장이나 찻는 자리 역시 아니다. 자기 주머니 털어내며 순수한 열정 하나만이 주위를 밝힐 수 있는 등대라는 말이다. 땀땀하게, 깨끗하게, 아담한 동포사회를 위하여 오직 헌신과 봉사라는 의미만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갈 때 목적을 향한 올바른 힘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양노원 재추진에 불을 당긴 4인방의 효도 정신으로 벌써부터 겨울 안방이 랑긋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가 느껴지면서 동포사회의 뜨거운 동참 열기에 기대를 모아 본다. ■

■ KBA 협동조합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416) 867-1444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905) 568-7909
(800) 387-8400
Saint Jimmy's Coffee Service ----- (416) 250-9427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 스낵

Frito Lay Canada ----- (905) 460-2414
South Cove ----- (905) 829-3666
Conagra Brands Canada ----- (416) 679-4200

■ 샌드위치

Classic group of companies ----- (905) 470-1926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 -----(416) 665-1052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 (905) 666-9395
Conagra -----1- (888) 639-7868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 (800) 500-5634
Mars Canada Inc -----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 (416) 442-3298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 ATM / Debit

Touch Cash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Solution -----1- (888) 554-7355

■ 잡지

Metro 360 ----- (416) 285-2050
News Group ----- (905) 681-1113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 (905) 272-4339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 (416) 250-3550
외환은행 ----- (416) 222-5200
이방록(회계사) ----- (416) 221-2009
박호진(보험중개인)----- (416) 985-5287

■ 언론사

한국일보 ----- (416) 787-1111
중앙일보 ----- (416) 736-0736
Globe and Mail -----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 (416) 909-7114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Adapt Media ----- (416) 856-4466

■ 기타

Kocom -----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DavidWholeSale ----- (416) 419-3751
78 Trading ----- (437) 777-7878
Yeno Trading ----- (647) 967-6561
용역 회사 Tyson Lee ----- (647) 545-0922
Atlantic Prepaid Card -----1-(888) 479-7779





Sincere Trading of KBA
West Mall Branch

December SPECIAL SALE



35⁹⁹

Red Bull
24/250ml Original Only
Reg.\$42.99 **Spe.\$35.99**



1¹⁹

Heinz
Tomato Juice 1.36L
Reg.\$2.49 **Spe.\$1.19**



1¹⁹

Allen's
Apple Juice 1.05L
Reg.\$1.35 **Spe.\$1.19**



1⁹⁹

2⁴⁹

3⁹⁹

McCain
French Fries 900g Reg.\$2.69 **Spe.\$1.99**
Xtra Crispy Fries 650g Reg.3.09 **Spe.\$2.49**
Premium Super Fries 650g Reg.\$3.09 **Spe.\$2.49**
Xtra Crisp Seasoned Fries 650g Reg.3.09 **Spe.\$2.49**
Deep'n Delicious Cakes 510g Reg.4.79 **Spe.\$3.99**
Deep'n Delicious Fruit Pies 680g Reg.4.79 **Spe.\$3.99**
Delicious Cream Pies 400g Reg.4.79 **Spe.\$3.99**
Pizza Pocket 3pack Reg.3.49 **Spe.\$2.49**



3⁵⁹

2⁷⁹

Sara Lee
Cheese cake 538g Strawberry & Cherry Reg.\$4.99 **Spe.\$3.59**
Oven fresh Pies 1.04kg All Flavours Reg.\$5.29 **Spe.\$3.59**
Pound Cake 304g Reg.\$3.59 **Spe.\$2.79**
Cream Pies 55g - 765g All Flavours Reg.\$6.99 **Spe.\$4.69**



Vidal Candy
1.2kg All Flavours Reg.\$7.49 **Spe.\$6.49**



Ferrero
Ferrero Rocher T3 3Packs Reg.\$15.25 **Spe.\$13.85**
Raffaello T3 3Packs Reg.\$19.65 **Spe.\$18.45**
Ferrero Collection T3 3Packs Reg.\$15.25 **Spe.\$13.85**



Clif
Clif Bar 68g All Flavours Reg.14.39 **Spe.\$12.75**
Clif Builders Bars 68g All Flavours Reg.16.69 **Spe.\$14.99**



Regal
D.Bubble Mi Phone \$17.99 **\$15.79**
Dubble Bubble Tub \$15.69 **\$13.99**
Baby Bottle Pop \$22.59 **\$20.29**



Kelloggs
Pringles 148g - 156g
All Flavours
Reg.\$2.39 **Spe.\$1.99**



Mondelez
Peek Freens 275g-300g All Kinds Reg.\$3.25 **Spe.\$2.89**
Crispers 175g All Flavours Reg.\$2.19 **Spe.\$1.99**



Brand Strategy
Popcorners 142g All Flavours Reg.\$2.05 **Spe.\$1.89**



Mondelez
Maynard Small Bag 17-185g
All Flavours Reg.\$1.89 **Spe.\$1.69**



Cadbury
Cadbury Singles Size 33-50g Excluding Flake
Reg.\$23.85 **Spe.\$22.85**
Flake 32g All Kinds Reg.\$29.59 **Spe.\$28.49**
Cadbury King Size 66-90g All Kinds
Reg.\$34.59 **Spe.\$32.59**



SPAM
Spam Luncheon Meat 340g
All Flavours Reg.\$3.75
Spe.\$3.09



Green Giant
Canned Vegetables 341-398ml
All Kinds Reg.\$1.49 **Spe.\$0.99**



Lindt Sprungli
Lindt Excellence Chocolate 100g All Flavours Reg.\$3.29 **Spe.\$2.75**
Lindt Classic Chocolate 100g All Flavours Reg.\$2.69 **Spe.\$1.99**
Lindor Singles 36g All Flavours Reg.\$23.25 **Spe.\$17.79**
Ricola Bag 75g All Flavours Reg.\$2.49 **Spe.\$1.89**
Ricola Sticks All Flavours Reg.\$27.69 **Spe.\$21.99**



Campbell's
Chunky Soup 540ml All Flavours Reg.\$3.05 **Spe.\$2.15**
Habibant Soup 796ml All Flavours Reg.\$1.89 **Spe.\$1.79**



Mr. Noodles

Cups 12/64g All Flavours Reg.\$10.65 **Spe.\$9.65**
 Flats 24/85g All Flavours Reg.\$7.49 **Spe.\$6.99**
 Bowls 12/110g All Flavours Reg.\$15.69 **Spe.\$13.69**



Classico

Pasta Sauce 410-650ml All Flavours
 Reg.\$3.79 **Spe.\$2.19**



C.B Powell

Sugar Twin Packets 50's Reg.\$1.49 **Spe.\$1.39**
 Sugar Twin Packets 100's Reg.\$2.85 **Spe.\$2.59**



C.B Powell

Stagg Chili 425g
 All Flavours Reg.\$2.65 **Spe.\$2.35**



Fishermans Friend

Fishermans Friend 16's All Flavours
 Reg.\$23.99 **Spe.\$21.49**
 Fishermans Friend 24's All Flavours
 Reg.\$35.89 **Spe.\$32.49**



Nestle Purina

Beneful Dog Food 1.36~1.8kg All Flavours
 Reg.\$5.89 **Spe.\$5.35**
 Beneful Wet Dog Food 283g All Flavours
 Reg.\$2.25 **Spe.\$1.95**



Cascades

April Soft Bathroom Tissue 4's
 Reg.\$21.49 **Spe.\$18.99**
 Fiesta Paper Towel 2'S
 Reg.\$19.99 **Spe.\$17.99**

15¹⁹



Tampax

Regular 10's Reg.\$16.89 **Spe.\$15.19**
 Super 10's Reg.\$16.89 **Spe.\$15.19**
 Super Plus 10's Reg.\$16.89 **Spe.\$15.19**



M2

12" Vortex Angle Broom Reg.\$4.05 **Spe.\$3.69**
 Snap 2 Go Mop Handle Reg.\$7.39 **Spe.\$6.59**
 Bagged Cotton Mop 16oz/450g Reg.\$3.25 **Spe.\$2.99**
 24oz/650g Reg.\$4.39 **Spe.\$4.15**
 32oz/850g Reg.\$5.79 **Spe.\$5.49**



Always

Always Ultra Slender w/ Flexi-wings 18'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Thin w/ 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Ultra Overnight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w/ Flexi Wings 18's	4.69	3.95
Always Thin Ultra Long w/ Flexi wings 16'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22's	4.69	3.95
Always Thin Maxi Regular w/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Ultra Thin Long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Thin Reg 16's	4.69	3.95
Always Ultra Thin Long 20's	4.69	3.95



West Mall Branch

169 The West Mall, Etobicoke
 T(416)867-1444 / F(416)789-5013

Business Hours

Mon. 06:30 - 17:00
 Tue. 06:30 - 17:00
 Wed. 06:30 - 17:00
 Thur. 06:30 - 17:00
 Fri. 06:30 - 17:00
 Sat. 06:30 - 16:00
 Sun. 11:00 - 17:00



2019 12.1~12.19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스페셜 상품들은 OKBA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Take Home



Lay's XL 2/\$6.50

Single Serve



Cheetos / Ruffles
2/\$3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

Happiness is simple